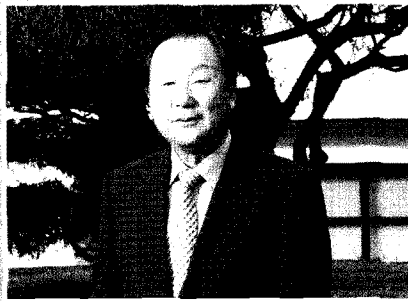


전 농촌진흥청장

# 이은종



퇴직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전 청장은 "우리 농촌은 인간이 숨쉴 수 있는 쾌적한 자연 환경을 제공하는 쉼터이다.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을 최우선 시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자연인으로 돌아온 이 전 청장의 최근 생활신조는 "노여워 말라, 부르면 달려가라, 구두끈을 오래 묶지 말라"란다. 세월의 흐름에 순응하며 현재의 삶에 감사할때만이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한다.

35년동안 농촌진흥청에 재직하면서 오직 '잘사는 농촌건설이 꿈'이었다는 이은종(68) 전 농촌진흥청장. '농업이 삶의 전부였다'는 이 전 청장을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즈음에 만나보았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기보다는 부모님이 주신 약하지 않은 체질과 아내의 이런 저런 도움으로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강한 편입니다.

퇴임 후 대소의 행사가 있을 때 가끔 뵙기는 했습니다만, 평소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사실 퇴임 얼마 후까지는 충남대학교 초빙 교수, 국제미작연구소(IRRI) 상임이사, 작물 보호제 회사인 주식회사 해숨의 상임고문을 지내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붙잡는다고나 할까요? 모두 즐



1. 영남농업시험장 연구실 시찰  
2. '바이오그린21사업단' 현판식을 갖고  
사업에 착수

## 농촌은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 제공 농업인 위한 연구사업 지속돼야

업하고 그저 종친회와 동창회에서 소소한 일을 맡아 보며 느긋한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을 농촌진흥청에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농업 농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청년시절 농대를 나와 농촌진흥청에서만 35년간 일해 온 사람으로서 왜 애정이 없겠습니까? 농업 농촌에 대한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업은 제 삶 자체였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재임시 특별히 강조하셨던 복무자침이나 경영철학을 든다면?

선진농업기술을 통한 잘사는 농촌 건설이 꿈이고 바람이자 농촌진흥청의 목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하여 인사 청탁을 완전 배제한 능력위주의 발탁인사를 추구하고 현장애로 기술의 발굴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선진 농업기술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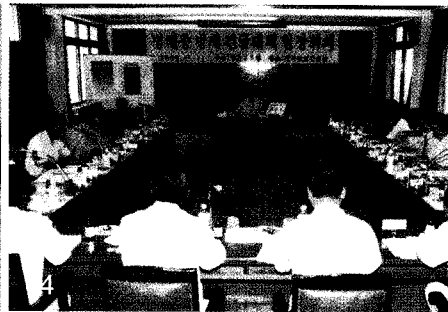
재임시를 회고하신다면 어떤 일이 가장 보람 있고 기억에 남으신지요?

바이오그린21 사업단 발족으로 아쉽게 시작만 하고 퇴임하였씀니다만,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7천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운 농업엔진생명공학(BT)을 집중 육성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직 말미인 2000년도쯤에는 TV드라마 전원일기에도 출연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에피소드를 들려주십시오.

농촌진흥청에 찾아온 농민대표들을 현관에서 환영하고 담당직원에게 안내를 부탁하는 짧은 출연이었습니다. 어찌나 긴장되고 떨리는지 찢찢 매고 있는데 일용씨(박은수 분)가 뒤에서 농담을 섞어가며 위로해 주었던 일화가 생각납니다. 또 그 짧은 출연 후에 전혀 연락이 없던 친구, 친지들한테서 전화가 오는 것을 보고 TV드라마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여간 농촌진흥청을 홍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3. 농촌진흥청을 찾은 전원일기 제작팀에게 농촌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
- 4. 병해충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
- 5. 가을 들녘에서 풍년농사의 기쁨을 누리며 밝은 웃음을 짓는 모습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농촌진흥청 일련의 흐름에 대한 고견을 주신다면?

모두가 어려운 때에 농촌진흥청만 안일하게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파격적인 인사 등으로 직원들이 다소 불안해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듯 하니 하루 빨리 안정되어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농업을 위해 농촌진흥청의 전도(前途)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농업연구는 짧지 않은 기간을 요구하는 반면에 이윤이 많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농업인을 돕는 차원에서 국가기관으로 남아 진정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선진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등 농업경쟁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식량위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런 즈음 농자재, 특히 작물보호제(농약)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작물수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밀식다비 재배가 불가피 한데 그러자면 작물보호제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

다. 물론 필요 없는 남용은 막아야겠지만 합리적인 작물보호제의 사용은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실제 농약 및 농산물 안전성과는 무관하게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로서 고견을 주신다면?

잔류허용량 이내의 작물보호제가 있는 농산물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반 수돗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농약안전사용기준만 지켜 준다면 관행농산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접하시는 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작물보호에 관계하는 여러분은 식물 의사이며 농약판매상 여러분은 식물 약사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긍심을 갖고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고 잘 사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